

이통3사, MWC에서
‘5G 산업 파트너십상’ 공동 수상

**- 과기부∙이통3사, MWC 어워즈에서 ‘농어촌 5G 공동이용’으로 수상 영예**

**- 세계 최초 민관 합동 5G 공동 구축∙이용… 5G 인프라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

**- “5G 공동이용으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 디지털경제 활성화할 것”**

|  |
| --- |
| **※ 엠바고: 금일 다른 이동통신사도 동일한 자료 배포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2021. 7. 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힘을 합쳐 추진 중인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 및 이용이 글로벌 통신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6월 30일(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시간) 과기부와 이동통신3사가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GSMA Global Mobile Awards, GLOMO Awards)'에서 ‘5G 코리아, 농어촌 5G 공용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 상(5G Industry Partnership Award)’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GLOMO Awards는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이동통신 분야 어워드로, 지난 1년간 개발∙출시된 이동통신 관련 기술∙서비스 중 탁월한 성과에 대해 선정해 시상한다.

과기부와 이통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농어촌 지역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5G 투자와 기술 구현 및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고, 이통3사간 농어촌 지역 공동이용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을 맺었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정부와 통신기업들이 협력해 특정 지역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협업 모델이다. 이번 수상도 한 국가의 모든 무선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의 5G 무선접속 네트워크(RAN) 쉐어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통3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3사 가입자 뿐 아니라 알뜰폰(MVNO) 가입자 및 글로벌 로밍 가입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어촌 5G 공동이용’은 통신사간 무선통신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용해 5G 인프라를 적국으로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ICT 정책인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저변 확대를 통한 5G 킬러 콘텐츠의 발굴과 5G 융합사업 활성화 등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과기부와 이동통신3사가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5G 코리아, 농어촌 5G 공용이용’으로 ‘5G 산업 파트너십 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사진 1 :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류정환 SKT 5GX 인프라그룹장(사진 좌측부터), 김대희 LG유플러스 NW인프라기술그룹장, 김영인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 상무사진 2 : GSMA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온라인 시상식 캡쳐 |

▶ 관련문의 : SKT PR실 기업PR팀 문진호 매니저(02-6100-3837)

**<끝>**